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6. 9 | Vol. 266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4층 대적광전 오백나한상 봉안 모연문

법왕사에서는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후불로 5백나한상 봉안을 모연하고 있습니다.

나한(羅漢)은 일체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얻어 더 이상 생사윤회의 흐름에 태어나지 않는 성자를 이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부처의 경지에 오른 16명의 뛰어난 제자를 '16나한'이라고 하며 부처가 열반한 뒤 제자 가섭이 부처의 설법을 정리하기 위해 소집한 회의 때 모였던 제자 500명을 '500나한'이라 하는데 나한은 인간의 소원을 성취시켜 준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당송(唐宋)시대에 유행했던 나한신앙은 삼국 후기부터 소개되어 고려시대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복을 주는 '복전(福田)'의 의미로 추앙받으면서 서민들과 가장 친숙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복전인 나한상 봉안에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가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 1인 1나한 동참금 : 108만원(분할납부 가능)
- 동참계좌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Vol. 266호



- 04 깨침의 향기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 부모님이시다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법왕사의 대원, ‘불교복지’ 완성을 위하여(1)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인류의 불행, 원한만 뿌린 정복사 · 본원스님
- 12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19)
앗타닷시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16 편액과 주련
염불암(念佛庵) 극락전(極樂殿) · 전일주
- 20 불교의 보살들
세상을 구하는 관세음보살
- 24 명찰순례
천년고찰 남방제일선원 전남 구례 지리산 천은사
- 28 법왕사소식
- 30 법왕사게시판
- 32 해오름소식
- 33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0(서기 2016)년 09월 01일 발행 | 통권 266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우리 부모님이시다

원공당 정무 대종사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왕사성의 기수급고 독원에서 큰 비구 삼만 팔천명과 여러 보살 마하살과 함께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대중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실 때, 한 무더기의 마른 뼈를 보셨다. 여래께서는 온 몸을 땅에 던지시어 마른 뼈를 향하여 예배를 올리셨다. 이를 보고 아난이 깜짝 놀라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는 삼계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비로운 아버지이시며, 여러 사람들이 귀의 존경하옵는데, 어찌하여 마른 뼈에 예배를 하시옵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십니다.

“네가 비록 나의 뛰어난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 되었어도 안목이 열리지 않았구나. 이 한 무더기의 뼈는 나의 전생의 오랜 조상이거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예배를 하는 것이니라.”

가슴에 전율이 일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중경(父母恩重經)』의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길가의 마른 뼈에 지극정성으로 예배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난 존자처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궁금해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보면 전생에 부모 형제 아난 이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고 죽고… 나고 죽으

며 윤회(輪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生)을 윤회하면서 수많은 삶을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느 생애가는 내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 자매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윤회의 이치를 안다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중생이 언젠가는 내 부모 형제였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듯 지금 이 생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으며, 어찌 괴롭힐 수 있으며, 어찌 해코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히말라야 산에 앵무새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부모 모두가 장님인지라 어릴 때부터 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항상 먹음직스런 열매를 얻으면 앞 못보는 부모에게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밭을 지나는데, 밭의 주인이 곡식을 심으면서 “이 밭에서 난 곡식은 중생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본 뒤로는 스스로없이 그 밭의 곡식을 물어다가 부모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밭의 주인이 곡식을 함부로 물어가는 앵무새를 그물로 사로잡았습니다. 앵무새가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보시하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곡식을 가져간 것인데, 왜 나를 잡아가두는 것입니까?”

앵무새의 말을 듣고 밭의 주인이 되물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곡식을 가져간 것인가?”

“부모님이 앞을 보지 못해서 제가 봉양을 하고 있습니다.”

앵무새의 말에 주인이 말했습니다.

“짐승도 부모를 위한 효심이 이렇게 지극한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앞으로는 언제든지 가져가도 좋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앵무새는 나 여래이고, 밭의 주인은 사리불이며, 앞 못 보는 부모는 정반왕과 마야부인이다. 옛날에 앵무새로 태어났을 때 효성 지극하게 부모를 섬긴 공덕으로 이생에 성불하게 된 것이다.” - 잡보장경(雜寶藏經)

불교에서 강조하는 효도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효도나 일반 윤리 도덕적인 효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생의 자기 부모에게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의 부모님, 앞으로 만날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며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겨 부모님께 효도하면 존경받는 삶, 진정으로 성공한 삶,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처님이 되어 영원한 자유인으로 진리의 삶, 해탈 자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법왕사의 대원, ‘불교복지’ 완성을 위하여(1)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법왕사는 ‘세계 최대 불교종합복지관’ 건립이라는 대원을 세우고 25년 전 천막법당에서 시작하여 온갖 난관을 뚫고 20년 만에 복지관 건립 불사를 회향하였습니다. 비록 세계 최대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을 통틀어 이만한 규모의 복지시설을 갖춘 사찰은 드물 것입니다.

제가 포교를 위한 도량을 창건하면서 복지에 주안점을 둔 것은 장차 불교가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나눔과 보살핌’을 실천하는 보살도의 실천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의 성불이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는, 그래서 이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바로 부처님께서 실천하셨고 역대 모든 불보살과 선지식들이 추구했던 바였습니다.

법왕사에서는 이 장대한 목표의 첫걸음으로 복지

관에 해오름요양원을 개원하여 25분의 어르신들을 부처님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정원을 채울 수 있을까?’ 하는 회의도 들었지만 25명의 정원은 금세 충원되었고 입소를 원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셨지만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용기를 얻어 제2의 해오름요양원 건립의 서원을 세우고 가창에 부지를 마련하기 시작하여 수년 만에 4천5백평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해오름마을이 조성되면 법왕사는 최초의 서원이었던 ‘불교복지’를 실천할 외적 여건은 다 마련한 셈인데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둘러보면, 최근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내용을 보면 우르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우선 자체 복지시설을 갖춘 곳보다는 공공 복지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도 태부족이어서 운영 면에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이런 현상은 불교계에 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며 그나마 배출된 인력들이 수련하고 경력을 쌓아서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가운데는 처

우와 신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장래 전망도 불투명하여 몸을 바쳐 일할 자세가 결여되어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계에 자체 복지시설이 더 많이 생겨서 불교복지 전문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육시설이 더 확충되어서 우수한 불교복지 전문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수요는 고령화사회를 반영하듯 노인복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인복지는 전통적으로 고정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복지의 향후 급격하게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곳곳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복지시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가운데는 정작 복지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의 지원금을 노리는 곳도 없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회복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종교만큼 적합한 조직이 없습니다. 종교의 존재의의가 우리 중생의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불교야말로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의 발로에서 참된 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밑바탕을 완벽하게 갖춘 종교라 하겠습니다.

인류의 불행 원한만 뿌린 정복사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최고의 범죄자로 기억해야 할 이들을 거꾸로 최고의 인물로 인식시켜 우상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기 조상들이 무참히 짓밟힌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되레 그들처럼 살아서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까지 길이 명성을 얻는 게 곧 대성공이고 출세라 여기 온갖 수식으로 미화하고 찬양하며 '뛰어난 리더십' 운운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패륜을 심는 범죄의 온상을 공들여 가꾸며 장차 화근이 될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최악 행위를 부추기는 격이다.

〈세상에 참평화 없애라 ~〉 오페라 소프라노, 에바 카트리나의 비에 젖어 가라앉은 듯한 애수의 아리아 선율이 FM 라디오 클래식 음반을 타고 흐른다.

겨우내 얼었던 강이 풀리며 녹아 흘러내리 듯이, 탐욕스런 소유와 지독한 집착이 야기한 갈등으로 옹고된 우리의 마음도 그처럼 녹듯이 풀어버리고 강물처럼 흘러 보내며 살게 된다면 사람 사는 공간 세상보다 살만한 곳이 되리라.

2001년 〈뉴욕 타임즈〉는 지난 천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빛나는 인물로

12세기 몽고의 정복자 징기스칸을 선정, 발표했다. 그러자 헝가리, 폴란드 등 징기스칸의 침략을 받은 동유럽국가들은 터무니 없는 허구며 억지 주장이라면서 반발했다.

〈타임즈〉의 주장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천부당만부당한 일로써, 생각건대 이는, 과거 그들의 선조가 개척시대 때 씨 뿌리고 저지른, 결코 떳떳하지 못한 정복을 뿌리로 한 역사를 의도적으로 덮어 합리화하는 발상에서다.

도전과 개척(프론티어십)을 국가 정신으로 삼아, 수천년간 정착하여 살고 있던 원주

민으로 평화롭게 살던 인디언의 땅 아메리카 대륙을, 악착 같은 회유와 갖은 술책, 농간을 부리며 점진적 무력으로 빼앗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추방했으며 무자비하게 인종을 탄압하고, 말살시켰는지 관련 기록을 통해서만이 그 비사(悲史)를 짐작할 따름이다.

프론티어는 곧 인디언 말살의 근원

‘미국의 역사학자 터너에 의하면, 서부로 전진하는 물결 속에서 최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프론티어다. 프론티어는 야만과 문명이 접촉지점이다. 인구 조밀지대를 깨뚫고 펼쳐져 있는 요새화한 국경선을 뜻하는 유럽의 프론티어와 달리 미국의 프론티어는 미개척지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 북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프론티어는 대서양 연안이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은 유럽의 프론티어였다. 그러나 서쪽으로 옮겨가면서 프론티어는 더욱 더 아메리카적으로 바뀌어갔다.

미국인의 서부 정복의 역사는 프론티어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인디언의 고통스런 수난사다. 미국인이 미개지라고 떠들었던 땅은 인디언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이었다. 미개지는 백인이 만들어낸 이름일 뿐이다. 인디언을 쫓아내고 부족 마을을 파괴하면서 미개척지로 둔갑시킨 것이다.

인디언의 생활 터전을 송두리째 뿌리 뽑

은 것, 이것이 바로 프론티어의 본질이다. 철학자 시몬느 베이유는 “인간이 뿌리내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인간을 뿌리 뽑히게 하는 모든 것이 범죄” 라고 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인디언 부족의 땅을 온통 짓밟고 다닌 프론티어는 미국인 대부분의 가슴 속을 후비고 들어갔다. 프론티어라는 광풍이 일으킨 여파는 실로 대단했다. 영국과 벌인 ‘1812년 전쟁’ 당시에 남부 지역의 인디언을 학살한 공으로 소장까지 승진한 땅 투기꾼 잭슨은 1828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인디언 부족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인디언을 극도로 싫어하여 인디언 말살의 최선봉장 역할을 도맡았던 주지사 해리스 역시 1840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혔다.

그렇다고 역사의 법정이 프론티어를 제대로 심판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다.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작성한 3대 대통령 제퍼슨은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으며 재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민주주의자 제퍼슨도 인디언 문제에 있어서는 팽창의 본능을 지닌 유럽인의 전형일 뿐이었다. 제퍼슨은 확신했다. 강제 이주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땅을 가로채는 수법이라고. 이 방법은 채찍과 당근을 섞기 때문에 쫓겨나는 당사자의 저항이 전쟁에 비해 훨씬 적다.

사실, 제퍼슨 정부 때 강제 이주가 행해지

지는 않았다. 미시시피 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을 서쪽으로 쫓아내기에는 인디언 부족의 세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도 간접적으로 인디언을 지원하고 있었다. 아직한 강제 이주라는 칼을 휘두를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812년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이 끝난 1820년대에 가서야 미국 정부는 강제 이주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다.

그렇긴 해도 제퍼슨 시대는 미국의 인디언 말살정책의 기초를 완성한 시기였다. 미국 독립 직후에 체로키족과 소니 부족을 미시시피 강 서쪽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던 제퍼슨은, 강제 이주를 미국 사회에 처음으로 공론화한 인물이다. 대통령이 된 후로는 강제 이주를 인디언 정책의 기본 뼈대로 구체화했다.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18세기의 유럽인에게 인디언은 야만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인디언 마을 공화국〉(여치현 지음)에서

〈타임즈〉의 지난 천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빛나는 인물 선정이 있고서, 우리나라도 이에 뒤질세라 각 방송매체에서는 '밀레니엄 리더십, 징기스칸!' 이라며 슬슬 띄우면서 과장 홍보하다가, 그를 비롯해 알렉산더, 나폴레옹 등을 주제 인물로 다루며, 그 같은 영웅들의 리더십과 지도력이 밀레니엄 21세기를 주도할 비전 제시라

며 그것을 본받고 배우자는 취지 하에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고 특집으로 내보내면서 그 여파로 당시 지식인 상류층 사회 분위기도 '리더십', '리더로서의 조건', '리더란 무엇인가?', '리더를 육성하는 학교!' 등등 온통 '리더'가 되고픈 순수한(?) 열망에 세간이 후끈 달아오른 때가 있었다.

정복자는 영웅이 아닌 범죄자

글을 배우기 전부터, 이미 누구나 익히 들어 아는 인물로서 간판적인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들을 두고 하나 같이 세기의 영웅들로 알고 인식하는 것은 교과서에 그처럼 씌어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며 배웠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다. 최고의 범죄자로 기억해야 할 이들을 거꾸로 최고의 인물로 인식시켜 우상적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자기 조상들이 무참히 짓밟힌 사실도 까맣게 모른 채, 되레 그들처럼 살아서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까지 길이 명성을 얻는 그게 곧 대성공이고 출세라 여기 온갖 수식어로 미화하고 찬양하며 '뛰어난 리더십' 운운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패륜을 심는 범죄의 온상을 공들여 가꾸며 장차 화근이 될 여러 가지 형태의 인간 죄악 행위를 부추기는 격이다.

이러다 보니 '기왕 도둑이 되려거든 힘 없어 옥살이나 하는 작은 도둑이 되지 말고, 나라를 속이고 세상을 훔치는 큰 도둑이 되

어라' 는 말이 현재 진행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려는 몽고의 침입을 30여년(1231~1262)에 걸쳐 모두 여섯 차례나 받는다. 1차 침입(고종 19년) 때 남쪽 내륙지방에 보관해 있던 팔공산 부인사(符仁寺)의 초조(初彫) 대장경과 호국정신의 결정체이자, 세계 건축문화사에 길이 남을 황룡사 9층탑이 이때 불타버렸다.

문화라고 모르는 유목으로 떠돌며 사는 무지한 야만인들이 이 땅의 찬란한 민족문화를 보고서, 무법자로서 상대적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신앙의 대상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불지르며 약탈함으로써 민심을 더욱 혼란케 하고 이탈하도록 하여 대몽항쟁 의지를 꺾고자 저지른 일이다.

끓주린 들개 떼처럼 밀려드는 20만 대군의 몽고 1차 침입을 당해 무사안일에 젖어 권력 암투에만 골몰하던 무신정권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으며 때문에 제대로 한 번 맞서 싸우기도 전에 힘 없이 굴복함에 따라, 정복군대의 요구대로 부녀자를 비롯한 26,800명의 무고한 양민들이 원나라 인질로 끌려가고 황금 70근과 은 1,300근 등이 공물로 바쳐진다.

당시의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가 몽고의 실권자 쿠빌라이에게 올린 '진정

표(陳情表)'를 통해 그때의 참상을 읽을 수 있다. '표(表)'라는 문장 양식은, 그 뜻이 신하가 옳고 그른 사리를 밝혀 군주에게 올려 깨우침을 주고 민심을 살피 해아리게 하며, 자신의 충정을 나타내는 서간문(書簡文) 형식의 글이다.

“황제시여, 이 나라 고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 원나라 군사들에게 눈에 띄는 대로 부녀자는 겁간을 당하고서 치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가 부지기수며, 말 달리며 닥치는 대로 살육과 방화, 약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속담에 한 여자가 한(恨)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였거늘, 무참한 죽임과 분탕질에 한 맺힌 원한의 곡성으로 가득한 고려국에서 일어나는,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생지옥의 참상을 두고 황제는 장차 이 일을 어찌하렵니까?”





앗타닷시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6년 8월호, vol. 265)에서는 보살(수메다)이 뼈아닷시 부처님(연등불로부터 13 번째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뼈아닷시 부처님은 태양 처럼 빛이 나서 모든 어둠을 파괴하고, 법의 바퀴를 굴린다. 그래서 수많은 이들을 통찰로 이끈다. 그때 고평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까싸빠 바라문'이었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 숲속 사원을 지어서 뼈아닷시 부처님에게 보시하고, 삼보에 귀의한다. 그때 뼈아닷시 부처님은 '까싸빠 바라문'에게 '미래에 고평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뼈아닷시 부처님은 9만년 동안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를 건너게 한 후 앗사타 숲속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파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n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싸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14번째의 붓다인 앗타닷시불(athadassi-buddha)에게 수기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

[불종성경(Buddha-vamsa)_CST4: KN-Bvm, ch.16, vs.1-26] 의역요약

1. 앗타닷시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2]_그 만다겹(maṇḍa-kappa : 두 명의 부처님이 태어나는 때)에서 위대한 명성을 가진 앗타닷시 부처님은 거대한 어둠을 파괴하고, 최고의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범천의 요청이 있자 범륜을 굴리는데, 불사(amata)의 깨달음에 의해 일만 신들의 세계를 만족시킨다.

[vs. 3-5]_그 세상의 군주인 앗타닷시 부처님에게는 세번의 통찰이 있다. 먼저, 10만 꼬띠(약 1조)의 사람들에게 첫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그리고 앗타닷시 부처님이 신들의 세계에서 유행할 때 [다시] 10만 꼬띠(10조)의 사람들에게 두번째의 통찰이 있게 된다. 또 다시 [앗타닷시]부처님이 아버지 계신

곳에서 설법할 때, 10만 꼬띠(1조)의 사람들에게 통찰이 있게 된다.

[vs. 6-8]_또한 그 위대한 성자인 앗타닷시 부처님에게는 세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고, 마음이 평화로운 그러한 모임이다. 첫번째 모임은 9만 8천명으로 구성된다. 두번째 모임은 8만 8천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세번째 모임은 7백 80만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들은 모두] 집착이 없고, 해탈하였고, 흠없는 위대한 성자들이다.

_*(아래 주석 1번 참조)

2. 수기

[vs. 9-10]_그때 나(고파마 부처님)는 수시마(susima)라는 극도의 결발 고행수행자였는데, 지상에서 최고로 간주되었다. 나는 천상의 홍두화 꽃과 연꽃을 신들의 세계에서 가져온 후, [앗타닷시] 정등각자를 크게 공경하게 된다.

[vs. 11-12]_또한 그 앗타닷시 대성자 부처님은 나(수시마 결발 고행자)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지금부터 무수한 겹(kappa)이 지난 후(1,800겹 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앗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

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수
 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나는 고타마
 (gotama)가 될 것이다. 풀리따(kolita)와 우
 빠땃싸(upatissa)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
 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
 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
 (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ṇṇ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
 (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짜따(citta)와 하
 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윗따라(uttarā)*와 난
 다마따(nandamāt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
 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타마 부처님
 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_*(아래 주석2번 참조)

비할데 없는 위대한 성자(앗타닷시 부처
 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
 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라고
 생각한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
 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
 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
 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앗타닷
 시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
 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
 치 [지금]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
 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
 자 [나중에] 좀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지금] 우
 리가 이 앓타닷시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
 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
 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_*(아래 주석3번 참조)

[vs. 13]_내가(수시마 결발 고행자=미래의 고
 따마 부처님)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
 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
 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3. 앓타닷시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4-16]_앗타닷시 스승이 살던 도시의 이
 름은 소바나(sobhana)이고, 사가라(sāgara)
 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수닷사
 나(sudassanā)이다. 그는 1만년 동안 집에
 서 머무는데, ‘아마라기리(amaragiri), 수기리
 (sugiri), 와하나(vāhanā)’라는 세계의 뛰어난
 궁전이 있다. 3만 3천명의 아름답게 장식
 된 여인들이 있으며, 위사카(visākhā)라는
 부인과 셀라(sela)라는 아들이 있다.

[vs. 17-18]_승자인 앓타닷시 부처님께서는
 8개월간 고행정진을 한다. 위대한 영웅이며,
 큰 명성을 가졌으며, 인간의 군주인 앓타
 닷시 부처님은 범천의 요청이 있자 아노마
 (anoma)숲에서 범륜을 굴린다.

[vs. 19-21]_앗타닷시 스승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산따(santa)와 우빠산따(upasanta)이고, 시자는 아바야(abhaya)이다.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담마(dhammā)와 수담마(sudhamm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짬빠까(campak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 신자는 나쿨라(nakula)와 니사바(nisabha)이고, 으뜸가는 재가여성신자는 마길라(makilā)와 수난다(sunandā)이다.

[vs. 22-24] 또한 그 [앗타닷시] 부처님은 무등등과 동등하고, 신장은 80 하타(44m)이고, 사라나무왕처럼 빛나며, [보름]달처럼 짝 차있다. 그 부처님의 수백피피 자연스런 빛은 위와 아래 시방으로 항상 1요자나(11km)만큼 확산된다. 또한 모든 중생 중에서 최고인 그 [앗타닷시] 부처님은 10만년 동안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머무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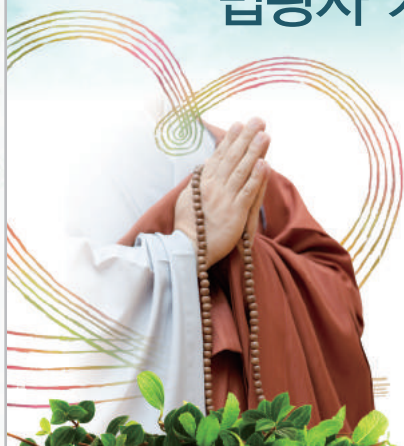
[vs. 25-26] 건줄 바 없는 빛을 보이고, 신들의 세계에서 빛나게 한 후, 그 [앗타닷시] 부처님도 또한, 마치 연료를 소진시키는 불처럼, 무상의 상태에 이른다. 위대한 승자인 앗타닷시 부처님은 아노마숲속사원(anoma-ārāma)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그 부처님의 유해는 많은 지역으로 널리 확산된다. <계속>

*주석1: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지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2: 불종성경(KN-Bvm ch.2, n. 69)에서는 옷따라와 난다마따를 마치 두사람인 것처럼 기록하지만, 앙굿따라 니까야(AN1, n. 262)에서는 한사람으로 나타난다.

*주석3: 원문의 계송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 있는데, 곧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법왕사 거사림 회원 모집



법왕사에서는 남성 불자들의 모임인 거사림 회원을 모집합니다. 법왕사에 재적 중인 거사(남성 불자)이면서 신심이 깊고 신행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거사림이 결성되면 매월 두 차례 정기법회를 가지며 연중으로 사찰 순례법회나 기타 수행,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뜻 있는 거사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거사림 법회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 7시 법왕사 대적광전

염불암(念佛庵) 극락전(極樂殿)

전일주 / 문학박사



1. 극락전의 편액과 주련

靑山疊疊彌陀窟(청산첩첩미타굴)
 蒼海茫茫寂滅宮(창해망망적멸궁)
 物物拈來無罣碍(물물염래무가애)
 幾看松亭鶴頭紅(기간송정학두홍)

첩첩한 푸른 산은 아미타 부처의 굴이요,
 망망한 푸른 바다는 적멸의 궁궐이로다.
 모든 사물 닥쳐와도 걸림이 없으니,
 소나무 끝의 학의 머리 붉은 것 몇 번이나 보았
 던가?

극락전(極樂殿)은 염불암의 중심에 자리한 큰 법당이다. 팔공산 7부 능선 가파른 산자락 아래 산령각과 염불바위가 있고, 그 아래 아담하게 3칸짜리 극락전 건물이 서 있다.

극락전이란 극락보전(極樂寶殿)의 다른 이름으로, 극락세계의 주불(主佛)인 아미타 부처님을 봉안한 법당이다. 아미타(阿彌陀)는 범어 ‘Amitabha’의 음사어이다. 영원한 광명의 부처님으로, 한량없는 지혜 한량없는 자비를 상징한다.

주련 글의 내용은 『석문의범(釋門儀範)』 속의 「미타청(彌陀請)·향화청가영(香花請歌詠)」에 나온다.

편액 글씨는 예서체이며, 주련의 글씨는 해서체이다. 편액과 주련 글씨의 품격은 완상할 가치가 높은 명필이다.

극락전 좌우에 두 채의 건물이 있는데, 편액만 있고 주련은 걸려 있지 않다. 우측 건물



극락전



에 걸린 염불암(念佛庵) 편액은 소당(小堂) 김대식(金大植)이란 분이 해서체로 썼다. 좌측 건물에 걸린 수월당(水月堂)은 한지에 쓴

채로 옛날 현판 틀에 덧붙여 두었다. 글씨는 행서체이다. 수월당의 원래 명칭은 동당(東堂)이었다고 한다. 동당 편액은 현재 방안에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 운치 있게 쓴 예서체의 글씨이다.

2. 산령각(山靈閣)의 편액과 주련



位銷丹霞色(위소단하색)
形潛綠水聲(형잠녹수성)

세속의 지위는 붉은 노
을빛에 사라지고,
육신의 형체는 푸른 물
소리에 잠기네.

염불암(念佛庵)은 동
화사의 산내 암자이다.
지금의 법당 위에 있는
큰 바위에서 염불 소리
가 들려 이곳에 암자를
짓고 염불암이라 하였다

고 전한다. 신라 경순왕(敬順王) 2년(928년)
영조선사(靈照禪師 ; 870~947)께서 창건하
고, 1962년에 개축하였다.

극락전 오른쪽 뒤에는 염불바위가 있다.
염불바위의 남면에는 문수보살, 서면에는 아
미타불이 조각되어 있다. 이 불상들은 문
수보살님이 조각하였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전설을 생각하며 오랜 세월의 풍상을 겪으
면서 긴 돌이끼와 바위 곁에 드리워진 낙락



산령각

장송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노라면 자연의
조화가 경이롭기만 하다. 산기슭에 독립하
여 우뚝 솟은 바위에 아로새긴 마애불은 불
심이 절로 우러나도록 만든다.

염불암은 동화사의 암자 중에서 높은 곳
에 위치하여 주위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암자 뒤를 두른 암벽과 숲, 계곡은 선경을
느끼게끔 한다. 염불암으로 가는 길은 동화
사의 서편 주차장에서 매점 뒤로 난 길을
따라 4km 정도 가야한다. 주소는 대구광역시
시 동구 도학동 산124-1 번지이다.

경내에는 극락전을 중심으로 요사채인
염불암과 수월당(水月堂)·산령각(山靈閣)이
있으며, 법당 앞에는 대구광역시 유형문화
재 제19호로 지정된 청석탑(靑石塔)이 있다.
이 탑의 규모는 작지만 연대가 오래된 유물
이다. 풍화작용으로 마멸이 심하여 투명유

리를 씌워 보호하고 있다.

산령각(山靈閣)은 산신각의 다른 이름이다. 산신은 중생을 해치는 요귀를 물리치고 부귀와 무병(無病)을 가져다주는 불교의 외호선신(外護善神)이다. 산신의 모습은 호랑

이를 거느리고 손에는 불로초나 경전을 든 신선의 모습인데, 동자의 시봉을 받고 있다.

산령각의 주련 글씨는 행서체인데, 누가 쓴 것이라고는 관지(款識)하지 않았지만, 동화사 산내암자에서 글씨를 공부하던 석재서병오의 작품이다.

3. 염불바위와 주변풍광



▶ 노승 한그루가 마치 우산처럼 드리운 염불바위



▶ 법당에서 바라본 염불 바위



▶ 극락전 왼편에 자리한 동당 편액과 방안에 걸린 수월당 편액.



▶ 극락전 앞 중앙에 자리한 청석 석탑은 보조국사가 쌓았다고 전하며 높이 1.4m의 13층탑이다.

세상을 구하는 관세음보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깨달음을 구해서 수도하는 중생', '구도자', '지혜를 가진 자' 등으로 풀이된다. 보살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머물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일체 중생을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도록 제도하기 위해서이다. 보살은 수행의 단계에 따라 계위(階位)가 주어진다. 초발심(初發心)은 최초 단계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도(行道)는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수행하는 단계이다. 불퇴전(不退轉) 단계는 수행으로 도달한 경지에서 물러나거나 수행을 중지하는 일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생보처(一生補處) 단계로 한 생이 끝나면 다음에는 부처가 되는 것을 말한다. 보살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쌓은 선근공덕(善根功德)을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불교에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소중한 존재이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범어로는 아바로키테스바라(Avalokitesvara)이고 관자재, 관세음, 광세음, 관세음자재, 관

음 등으로 한역된다.

대자대비를 근본서원으로 하는 보살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의 교조인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정토신앙의 대상인 아미타불보다 더욱 많이 신앙되는데 이것은 이 보살이 현세 이익을 가장 많이 시여하는 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으로는 관자재보살과 관세음보살인데 그 중에서 후자 쪽이 더욱 많이 일컬어지고 있다. 관자재는 중생의 근기를 관찰함에 있어서 자재하다는 의미로



지혜를 바탕으로 설해진 〈반야경〉 등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관세음은 세간의 갖가지 고뇌음성을 관한다는 입장에서 자비를 바탕으로 설해지는 〈법화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에서 불리고 있다.

〈능엄경〉에 의하면 관세음보살은 이근원통(耳根圓通)의 보살로 다른 24분의 보살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원통교주라고도 한다. 미타삼존의 한 분으로 아미타불의 좌보처이며 보타락가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생에게 일체의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베푼다 하여 '시무외자(施無畏者)', 자비를 위주하는 자라 하여 '대비성자(大悲聖者)', 세상을 구제한다 하여

‘구세대사(救世大士)’라 한다.

이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갖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크게 33응신을 들며 이러한 현상을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 한다. 왼손에 연꽃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감로병을 들고 있기도 하며 대개 여성의 모습으로 시현한다. 늘 흰 옷을 즐겨 입으므로 백의대사라고도 하는데 이는 이 보살의 고결함을 의미한다.

‘관음’이라 약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종류로는 성관음, 천수관음, 마두관음, 십일면관음, 준제관음, 여의륜관음 등 6관음을 비롯하여 나중에 양귀비관음, 마리아관음, 청경관음, 양류수관음, 대륜관음, 수월관음, 만월관음, 군다리관음 등 많은 관음이 있다. 이 가운데 성관음(聖觀音)이 본신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보문시현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화신이다. 이 보살을 모신 전각을 관음전(觀音殿) 원통전(圓痛殿)이라 한다.

불공견보살(不空見菩薩)

범어로는 아모가다르싸나(Amogha-arsana)이다. 불공안(不空眼)보살 또는 정류보살(正流菩薩)이라고도 한다.

현겁 16존의 한 분이며 금강계 만다라 삼매야회, 미세회, 공양회, 향삼세갈마회 등의 각 윤단(輪壇) 밖 동방(아래쪽)의 네 보살 가운데 북방(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자리에 안주하는 보살이다. 〈대방등대집경보살



염불삼매분〉 제2권 〈불공견본사품〉에 이 보살의 이행과 본사(本事)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보살은 과거 무량한 아승지겁 전에 현재의 미륵보살로 출현한 사자의 보살과 더불어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때의 이름은 사자보살이었다.

또한 이 보살이 불공견이라 불리게 된 데에는 이 보살이 오안(五眼 ; 肉眼, 天眼, 慧眼, 法眼, 佛眼)을 갖추어 항상 법계의 중생에 대한 평등과 차별을 관찰하여 모든 악을 제거하고 올바르게 선한 길로 이끌어 무여열반에 나아가게 하므로 불공견이라 하고,

또한 모든 일을 성취시키며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불성이 본유함을 가리키는 보살이므로 불공견이라 한다는 것이다.

밀호는 보견금강(普見金剛) 또는 진여금강(眞如金剛)이다. 진여의 불공(不空) 함과 보견의 견(見)이 어울려 불공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 종자는 아호(Ah)이며 삼형(三形 ; 삼매야형)은 일고안이다. 즉 부처님의 눈으로 중생을 보고 흑업번뇌(黑業煩惱)를 꺾어 파하는 묘용을 상징하는 것이다. 형상은 살결색에 왼손은 주먹을 쥐어 허리에 안치하고 오른손은 연꽃눈(蓮華眼)을 쥐고 있다.

현겁 16존에 ‘불공(不空)은 연화안이다’라고 하고 있다. 인계(印契)는 불안인(佛眼印)을 맺고 있다. 태장계만다라에서는 지장원 가운데 위쪽으로부터 제2의 자리에 있으며 밀호는 보관금강(普觀金剛)이며 삼형은 연꽃 위의 불두(佛頭)로서 연꽃 위의 광안(光眼)을 하였으며 종자는 카(Ka)다. 형상은 온몸이 살색이고 머리에 보관(寶冠)을 얹었으며, 오른손은 손바닥을 세워 약간 올려 어깨 밑에 두고 왼손은 연꽃 위의 불두를 들고 있다. 그리고 붉은 연꽃위에 결가부좌를 하고 있으며 진언과 인계는 금강계만다라와 같다.

대체로 이러한 모습의 불공견보살은 〈대일경〉에 그 근거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

범어로는 바즈라파니(Vajra-pani), 바즈라다라(Vajra-dhara)이며 집금강보살, 비밀주보살이라고도 한다. 보통 금강저를 쥐고 있는 보살을 가리키며 혹은 특별히 밀적금강역사(密迹金剛力士)를 지칭하기도 한다.

증일아함 제22권 〈수타품(須陀品)〉에 ‘밀적금강역사는 여래 뒤에 위치하며 손에 금강저를 잡는다’ 라 하고, 〈대일경〉 제1 〈입진언문주심품(入眞言門住心品)〉에 ‘어느 때 바가범께서 여래가지광대금강법계 중에 머무시니 일체 금강저를 지닌 자가 모두 모여들었다’ 고 하며 19명의 집금강(執金剛)을 열거하고 있다. 태장만계다라 금강수원(金剛手院)의 제존을 통칭 금강수라고 하는데 이는 금강수가 개별적 고유명사이기도 하지만 통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금강수보살에게는 깊은 뜻과 얇은 뜻이 있는데, 얇은 뜻으로는 비밀주는 야차왕을 가리키며, 이는 야차왕이 금강저를 잡고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호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강수보살이라 한다. 그러나 깊은 뜻으로 본다면 야차왕은 곧 여래의 삼밀(三密)이다. 이 삼밀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서로 알 뿐 설사 마륜보살이라도 오히려 비밀신통에는 힘이 미치지 못한다. 비밀 가운데 가장 비밀하여 소위 심밀(心密)의 으뜸이 되기 때문에 비밀주보살이라 하고 능히 이 인(印)을 갖고 있으므로 집금강이라 한다



고 〈대일경소〉 제1에는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취석(理趣釋)〉 상권에서는 ‘금강수보살마하살이란 이 보살은 본래 보현보살이다. 비로자나불로부터 친히 오지금강저(五智金剛杵)를 받았고 금강관정을 받았으므로 금강수라 한다’ 라고 하여 보현보살과 같다고 하였다. 〈보리장장엄다라니경〉에서는 ‘적가모니 부처님 왼쪽에 문수보살을 안치하고 갖가지 영락으로 장엄하며 연꽃 위에 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발우를 받들어 부처님에게 올리는 모습을 짓게 하고, 부처님의 오른쪽에는 금강수보살을 그리되 일체 보배로써 몸을 장엄한다. 얼굴 모양은 분노로 성내는 형상이고, 손에 금강저를 잡고 빙빙 돌리는 형태를 짓는다. 그러면서 연꽃위에 두 무릎을 꿇고 여래를 우러러 뵈는 다’ 라고 하여 문수보살과 동격에 놓고 있다.



천년고찰 남방제일선원 전남 구례 지리산 천은사

지리산 성삼재에서 구례 방향으로 한참을 내려가다보면 숲 속에 자리 잡은 사찰이 하나 있다. 바로 남방제일선찰인 천은사이다. 천은사는 구례군 광의면 지리산의 서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이다. 화엄사, 쌍계사와 더불어 지리산 3대 사찰 중에 하나이다. 지리산의 높고 깊은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절 옆으로 펼쳐지고 우람한 봉우리가 가람을 포근히 둘러싸고 있어 아늑하기 그지 없다. 특히 노고단에 이르는 지방도로가 절 앞까지 이어져 있고 화엄사까지 직통하는 도로가 있어 지리산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극락보전



이광사가 쓴 현판으로 유명한 일주문

천은사는 신라 때 창건되었다. 신라 중기인 828년(흥덕왕 3)에 인도 승려 덕운스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명산을 두루 살피던 중 지리산에 들어와 천은사를 창건했다고 알려져 있었다. 앞뜰에 있는 샘물을 마시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하여 감로사(甘露寺)라 하였다. 그 뒤 875년(헌강왕 1)에 도선국사가 중건하였다. 절은 고려시대에 더욱 번성하여 충렬왕 때에는 ‘남방제일선원(南方第一禪院)’으로 승격되었다. 그러다 임진왜란 등의 병화를 겪으면서 가람의 대부분이 소실되는 등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1610년(광해군 2) 혜정선사가 소실된 가람을 중창하면서 선찰의 명맥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1679년(숙종 5) 단유선사가 절을 크게 중수하면서 절 이름을 천은사로 하였다.

단유선사가 절을 중수할 무렵 감로사의 샘가에는 큰 구렁이가 자주 나타나 사람들이 무서움에 떨자 한 승려가 이를 잡아 죽였더니 그때부터는 샘이 솟아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샘이 숨었다’고 해서 천은사(泉隱寺)로 이름을 바꿨다고 한다.

그런데 절 이름을 바꾸고 가람을 크게 중창했지만 절에는 여러 차례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은 입을 모아 절의 수기(水氣)를 지켜주던 이무기가 죽은 탓이라 하였다. 얼마 뒤 조선의 4대 명필가 중 한 사람인 원교 이광사(1705~1777)가 절에 들렀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수체(水體)로 물 흐르듯 ‘智異山 泉隱寺’라는 현관을 써서 일주문에 걸게 하자 다시는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천왕문

1774년(영조 50)에 해암선사가 그 전 해에 화재로 소실되었던 전각을 중창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천은사 일주문을 지나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위로 무지개 다리가 놓여 있다. 피안교이다. 다리 위에 2층 누각인 수홍루가 있다. 무지개가 드리워 내린 듯 계곡과 함께 어우러진 수홍문(垂虹門)은 천은사를 대표하는 경치라고 할 만큼 아름답기로 소문이 나 있다.

천은사는 대웅전 대신 극락보전이 사찰의 주된 전각이다. 극락보전은 1774년 해암선사가 중수하면서 세운 전각으로서 조선 중기 이후의 전통적 다포계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앞면 3칸, 옆면 3칸의 팔작지붕인 극락전은 높직한 방형의 장대석으로 기단을 마련하고 그 위에 민흘림의 둥근 기

둥을 올렸다.

불단에는 아미타여래를 중심으로 관음, 대세지보살이 협시한 삼존불상이 있고 그 뒤에 보물 제924호인 아미타후불탱화가 봉안되어 있다. 아미타후불탱화는 세로 360cm, 가로 277cm 크기의 삼배마당에 짙은 녹색과 적색으로 채색되었는데, 그 구도와 기법 등이 매우 훌륭하고 보존 상태가 좋다. 화면은 중앙의 사각대와 위에 앉은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8대 보살과 사천왕, 10대 제자 등이 등글게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불보살들에는 광배의 한쪽에 붉은색의 사각형 칸을 만들어 흰 글씨로 그 명칭을 적고 있어서 아미타불화의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보물 제1340호인 괘불은 비단채색으로 크기는 길이 894cm, 폭 567cm로, 거대한 화



무지개 다리 위에 있는 수홍루

면에 꼭 차게 정면을 향하여 서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673년(현종 14)에 경심·지감·능성스님이 그린 이 괘불은 독특한 채색, 필선, 문양 등에서 17세기 후반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546호인 나옹화상 금동불감은 팔각지붕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전면에는 문을 여닫게 되어있다. 문을 열면 돌을새김을 한 인왕상이 힘차고 강건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내부벽면 3면을 모두 돌을새김으로 불상을 조각해 놓았다. 내부에 봉안한 불상 가운데 본존불은 본래 삼존 형식으로 조성된 것이나 지금은 2체만 남아 있다. 나옹스님은 절의 뒷편 노고단 중턱에 있었던 상선암에 머물며 수행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

때 스님이 지니고 있던 원불과 불감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의 빼어난 산과 맑은 물, 그리고 풍광 속에서 만나는 불법의 진리는 더 없이 보람된 일일 것이다. 특히 독특하고 운치가 득한 수홍문을 건너다보면 친은사만의 특별한 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찾아가는 길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나들목에서 빠져나온다. 남원교차로에서 순천 함양방면으로 좌회전해 2km 정도 달리다 고죽교차로에서 순천방면으로 우회전해 구례 광의사거리까지 달린다. 광의사거리에서 노고단 방면으로 좌회전 한 후 6km 정도 달리면 천은사가 나온다. 이 길은 광주대구고속도로 남원JC에서 순천완주고속도로를 타고 화엄사나들목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거리면에서는 훨씬 짧다.

법왕사 소식

백중 및 우란분절 천도법회 회향



법왕사에서는 지난 6월 30일 입재한 백중(우란분절) 영가천도 49재를 8월 17일 회향하였습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지옥도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기 위해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올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양하여 어머니를 구했다는 유래를 가진 불교의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불자들은 기도 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였습니다. 또한 49재 기간 중에는 지장보살 사불과 사경법회도 동시에 열어서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였습니다.

제32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지난 8월 20일 제32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하였습니다. 이번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49일만인 10월 7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를 천도,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2017학년도 수능 100일 관음기도 봉행중

법왕사에서는 2017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지난 8월 10일 입재하여 11월 17일 수능일에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님들은 영험있는 기도 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동안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고 불보살님의 가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백중, 지수스님 특별법문



백중이자 우란분절인 지난 8월 17일 백고좌법회 법사로 초빙된 지수스님께서 '세상 사는 이야기'란 주제로 특별법문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이날 불자들의 궁금한 점을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즉문즉설 형식으로 법회를 진행하여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백고좌법회 회향일 지환스님 초청 특별법문



오는 10월 8일 제32회 백고좌법회 회향법회는 팔공총림 유나인 지환 큰스님을 초청, 특별법문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백고좌 회향법회는 예외없이 보살게 및 불명 수지법회를 병행하였으나 이번에는 선법문으로 대중법문을 하시는 지환스님을 모시고 특별법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환스님은 대표적인 선승으로 1967년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1969년 광덕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해인사, 백양사, 운문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하신 스님입니다.

또한 이날 법회에는 법왕사 우담바라 합창단의 축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영농조합법인 (주)해오름 마을 출범



가창 제2해오름요양원 부지에 영농조합법인 (주)해오름 마을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주)해오름 마을은 조만간 농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품질 좋

은 지역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불자와 주민들에게 판매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자승 총무원장 예방



주호영 신임 국회 정각회장이 8월 18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정각회 회원들과 잘 상의해 불교를 외호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

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정각회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신심이 깊고 불교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 회장을 맡아 기대가 크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예방은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정각회 정기총회에서 제20대 국회 상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후 첫 방문이며 국회 정각회는 9월 2일 서울 조계사에서 주호영 신임회장의 취임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법왕사 신도로 대구 수성읍에서 당선된 4선 의원입니다.

본당 사무실 새단장



본당 1층 사무실을 새단장하여 각종 법회와 문화교실 강의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실에는 불교용품과 서적 판매도 함께 할 예정이오니 불자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거사림 회장에 김판돈 거사 취임

법왕사 부부신도 모임인 거사림 회장에 김판돈 거사(오복부동산 대표)가 소임을 맡기로 하였습니다. 거사림은 남성 불자들을 중심으로 부부가 함께 수행활동을 하는 모임으로 법왕사에서는 매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저녁에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이종희 전득근 김용돌 최병희 석동호
김동희 배병집 이팔윤 현대훈 조영태
백영두 여창식 신화성

법왕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보도움 주신 분

효상스님 300부 최옥남 500부 관일스님 200부
강현성·서경아 30만원
도움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법왕사보는 거듭 새롭게 꾸며질 것입니다.

공양 올리신 분

◎ 떡공양 올리신 분

김호연 이용웅 김호연 서미숙 김정석
권상태 권태일 이세정 이승민(칠월칠석)
박세은(백일) 정성욱(생일)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양문갑 양영갑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이승민

◎ 불전함 보시 올리신 분

석명수 박순선 석동호 박순신 전필근
전홍열 김종락 김종수

◎ 물품보시 올리신 분

석명수

◎ 공양미 올리신 분

조춘자 김기수 권무길 신현채 심보현

김종구 심영호 성 윤 정민수 정입분
구실상화

백중 공양 올리신 분

◎ 떡공양 올리신 분

이진국 조복래 이재학 제갈선 이일심원
정영웅 옥영규 이정애 이종량 이수덕심
김대곤 박홍렬 홍현덕 이종순 백대행심
박종성 고영자 서금자 이현자 박이자
김종황 이세정 이재학 백월순 조복래
배해동 김상한 정영선 전대곤 이상봉
심규암 박익건 장재혁 이윤주 이세정(4재)
백대행심(4재)

◎ 과일공양 올리신 분

세광하이테크(백중 과일공양 일체) 전태일
강정현 권순예 권범수 강정현 여택동
강유미 여택동 김소영 김두성 김봉조
양문갑 양영갑 권상태 이동학 김민지

◎ 대중공양 올리신 분

오진환 금태운 장우성 이영석 신재호
김상숙 이석진 김수자 강정선 신장희
지장희 관음회 산신회 조용묵(국수)
합창단장

◎ 공양미 올리신 분

김도연 박영승 정해용 김수자 서갈수
이현우 강준희 김선우 김현숙 김봉원
신현욱 남현우 장삼술 전호환 김옥출
이재학 박혜진 이종량 정정호 강정선
김성도 이승엽 이길우 하경순 지주연
조동선 정재철 조복래 전장광 한선동
조갑순 최남구 조춘자 최홍규 서상택
김종구 이승민 사공관 김기수 김수자

이동희 조기수 여택동 박경영 구승우
권순득 이정철 김순자 이승재 박정순
김성호 김 건 권마하연
이채원(140kg) 이세정(60kg)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남상균 권오국

◎ 일년등 올리신 분

803 류종렬

◎ 해오름마을 한평불사 올리신 분

주상준 최옥남 박은영

◎ 산신인등 올리신 분

13 김중수 14 석명수 15 김현숙

◎ 대적광전 인등 올리신 분

75 고영인

◎ 부처님 복장물 올리신 분

이용재 진숙자 오재대

◎ 본당불사 올리신 분

사공순옥

◎ 만불전 1인원불 봉안하신 분

3530 제갈선

◎ 오백나한상 불사하신 분

53 김상수 54 박근범 김현향(서광상사)
55 오재대

◎ 백중영가 왕생극락등 올리신 분(복위자)

강춘희 김선우 심재용 강추월 강옥경
이철우 김인현 김창득 김이규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김관음행 영가의 초재가 7월 31에 있었습니다.
- ◆ 亡김금향 영가의 막재가 8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亡한창수 영가의 기제사가 8월 5일에 있었습니다.
- ◆ 亡전병호 영가의 천도재가 8월 3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오태 영가의 막재가 8월 9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혜남 영가의 기제사가 8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亡구용해 영가의 기제사가 8월 10일에 있었습니다.
- ◆ 亡백두진 영가의 막재가 8월 14일에 있었습니다.
- ◆ 亡재갈원 외 영가일체의 천도재가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亡최공후인 외 영가일체의 천도재가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亡최영제 영가의 기제사가 8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亡금복순 영가의 기제사가 8월 21일에 있었습니다.
- ◆ 亡최위선 영가의 초재가 8월 21에 있었습니다.
- ◆ 亡이진구 영가의 막재가 8월 24일에 있었습니다.
- ◆ 亡하종숙 영가의 기제사가 8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 亡손분정 영가의 막재가 8월 28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해오름 요양원 소식



야외나들이

써포터즈 봉사단과 함께 대구미술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실내에서 다양한 미술작품을 관람하면서 그동안 목말랐던 문화적 갈증도 해소하고 답답했던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경험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수성구 생활체육회 소속 강사가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활체조를 지도하였습니다. 도구 없이 맨손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음악과도 함께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신파티

8월에는 어르신 두 분의 생신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 두 어르신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고 맛있는 케익과 간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신을 맞이하신 어르신께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미술프로그램

그루터기 봉사단이 미술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도화지에 이름을 적고 꾸미는 놀이를 하였는데, 어르신들께서 도화지에 자신의 이름이 조금씩 예쁘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르신들의 마음도 같이 예쁘게 꾸며지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이재빈(웃음치료) 이영희(네일아트) 허고은(음악치료)
 안순정, 이경희(라인댄스공연) 이미숙, 이재숙(무료이미용)
 | 단체 정기봉사자 | 위대상담심리센터(미술심리치료) 오카리나공연(더오카리나)
 써포터즈(야외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07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선옥 5만원	김수곤 5천원	김진현 5천원
강소남 5천원	김수라 1만원	김진현 5만원
강심규 5천원	김수원 5천원	김창안 1만원
강영도 2만원	김수윤 5천원	김필남 1만원
고연숙 1만원	김수자 1만원	김형택 2만원
구정대 2만원	김순연 5천원	김혜자 5천원
권계화 1만원	김순태 1만원	남기웅 1만원
권숙자 1만원	김영호 1만원	노귀자 5천원
권순득 1만원	김영희 5천원	노수정 1만원
권순미 1만원	김옥희 5천원	도화순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외자 1만원	독고보경 1만원
권순칠 1만원	김외환 1만원	류윤만 1만원
권영철 5천원	김용태 1만원	문정애 2만원
권오관 2만원	김우영 1만원	박경자 5천원
권오국 1만원	김원철 6만원	박귀분 1만원
권춘자 3만원	김유진 1만원	박남희 3만원
금명섭 5천원	김은주 1만원	박대희 5천원
김경자 1만원	김의목 1만원	박동규 5천원
김경호 1만원	김임태 5천원	박성숙 5천원
김기덕 2만원	김정규 5천원	박성용 5천원
김기수 2만원	김정숙 5천원	박성은 5천원
김대현 5천원	김정순 3만원	박성찬 1만원
김만기 5천원	김정임 1만원	박성후 2만원
김명옥 1만원	김정자 5천원	박수진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종균 1만원	박순남 5천원
김미정 1만원	김주현 1만원	박순영 5천원
김민주 1만원	김진성 1만원	박원태만5천원
김봉숙 5천원	김진현 1만원	박인철 1만원
김성의 1만원	김진현 1만원	박정묵 1만원
김성자 1만원	김진현 2만원	박종규 1만원

박치민 5천원	양혜진 1만원	이정희 3만원
박희조 5천원	엄세비 1만원	이정희 5천원
반룡사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종희 5천원
배소춘 5천원	오난옥 5천원	이준우 5천원
배수현 2만원	용마관음사3만원	이채원 1만원
배하수 1만원	유경희 1만원	이하예진5천원
사공관 2만원	유명옥 1만원	이현기 1만원
서정희 1만원	윤명숙 1만원	이현옥 1만원
서치경 1만원	윤윤근 1만원	이호동 5천원
서호정 2만원	이경자 1만원	이호조 1만원
석종순 1만원	이남희 1만원	임상덕 1만원
성인자 1만원	이명숙 1만원	임예숙 1만원
손복남 1만원	이명희 1만원	장우성 1만원
손수경 1만원	이병노 1만원	장재혁 5천원
손수연 1만원	이병희 1만원	장지연 1만원
송민경 1만원	이복희 1만원	장찬규 5천원
송정숙 5천원	이상혁 1만원	장호주 5천원
시명숙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경석 2만원
신구자 5천원	이성자 1만원	정경숙 1만원
신돈식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명선 2만원
신세호 1만원	이승미 1만원	정무시 1만원
신임선 5천원	이승환 5천원	정무시 1만원
신진무 1만원	이옥자 1만원	정민경 1만원
신진숙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병태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숙자 1만원
신화식 1만원	이인순 5천원	정순옥 5천원
심규암 5천원	이임숙 2만원	정순옥 5천원
심종순 5천원	이재봉 5천원	정시영 1만원
안경순 1만원	이전희 5천원	정연이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점예 2만원	정영자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정숙 1만원	정옥선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정연 5천원	정옥수 5천원
양봉률 1만원	이정옥 1만원	정인철 2만원
양지영 1만원	이정화 1만원	정태교 5천원

정혜숙 1만원	채옥연 5천원	한희록 1만원
정활수 3만원	최경순 1만원	허유미 5천원
조규인 1만원	최분규 1만원	홍유식 5천원
조성자 5천원	최승임 1만원	황미선 2만원
조영석 1만원	최영희 1만원	황준원 1만원
조영숙 5천원	최윤희 5천원	황지영 1만원
조인성 5천원	최정수 2만원	황학영 1만원
조정자 5천원	최창숙 5천원	
진봉희 1만원	한규매 1만원	

총합계 : 2,310,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0,000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서동남, 김순덕, 김양순, 도순자, 이남경

◎ 지출내역

쌀 구입비	: 800,000원
CMS수수료	: 44,000원
간식 구입비	: 252,400원
케익 구입	: 30,000원

총지출 : 1,126,400원

-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정점분 어르신 보호자 : 두유 1박스
이정화 어르신 보호자 : 포도 4송이
이선희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2박스, 과자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30개, 요플레 12개, 박카스 1Box
이옥주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15개
이덕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비타500 1박스
나영연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 베지밀 2박스, 복숭아 1박스, 떡 1박스, 바나나 2손
김길순 어르신 보호자 : 수박 2통
노진덕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130개
박해연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이재희 어르신 보호자 : 비오비타 1박스
유세묘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포도 1박스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빵 2박스
문창욱 어르신 보호자 : 요실금 팬티 대형 1박스
김숙자 어르신 보호자 : 수박 2통
안태임 어르신 보호자 : 비오비타 1박스, 베지밀 1박스
정갑순 어르신 보호자 : 포도 2박스
채용자 어르신 보호자 : 음료수 4박스, 수박 2통
오외득 어르신 보호자 : 치킨 2세트
효산장례식장 : 복숭아 2Box
차경환님 : 문고리 외 집수리 보수용품 70만원 상당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새로 입사하신 분

김양순 요양보호사 김순덕 요양보호사
서동남 작업치료사

신규 입소 어르신

김길순 어르신 김숙자 어르신
윤순자 어르신 허옥순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서정희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
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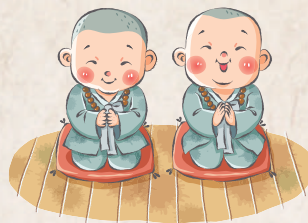


하회물류(주)(www.hahoefood.com)에서는 매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학년도 수능 100일 관음기도 입재

법왕사에서는 2017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8월 10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17일에 회향합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 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고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해오름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해오름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해오름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름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주지스님의 생활역학(택일 · 작명 · 개명 · 묘터) 봉사 안내



법왕사에서는 불자들이 맞는 이사와 결혼, 이장 등 택일, 작명과 개명, 묘터 선정에 관한 생활역학 문제에 대해 주지 실상스님께서 불법에 의거해 봉사하기로 하고 불자님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불자들이 불법이 아닌, 무속이나 사이비 역학에 의해 이러한 생활역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부처님법에 의한 조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제32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입재

법왕사에서는 8월 20일 제32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를 입재했습니다. 이날 입재한 49재는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매일 기도를 올리며 10월 7일 회향합니다.

영가천도에 참여하는 불자들은 기도기간 중 선망부모와 조상 및 수자령가 들을 천도,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사경책을 한 권씩 정성들여 베풀어 회향일에 불사르는 의식도 봉행합니다.

법회기간 동안 조상영가 천도재를 올림으로써 왕생극락을 기원하는 49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기도

입 재 8월 20일(음. 7월 18일)
초 재 8월 26일(음. 7월 24일)
이 재 9월 2일(음. 8월 2일)
삼 재 9월 9일(음. 8월 9일)
사 재 9월 16일(음. 8월 16일)
오 재 9월 23일(음. 8월 23일)
육 재 9월 30일(음. 8월 30일)
막 재 10월 7일(음. 9월 7일)
※영가 접수 받습니다.(매주 수요일 재일)
※영가 1위당 5000원

준비물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문의

법왕사 766-3747, 9088

※ 매 재마다 재물(과일, 떡)을 공양하실 분은 종무소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불사 모연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大寂光殿) 장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웅장한 단집을 완공하였고 현재 불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삼신불 봉안불사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웅장한 대적광전에 주석하실 삼신불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부처님 복장물 접수안내

오보(다섯가지 보배)	거부 장사가 되길 원하는 불자	각자지참
오곡(쌀, 보리, 대두, 조, 기장)	음식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사(다섯가지 실)	좋은 인연을 가지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향(다섯가지 향)	몸에서 법신, 법계의 향내가 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화(다섯가지 꽃)	아름답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금(다섯가지 비단)	좋은 옷이 생기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경(다섯가지 거울)	심신이 깨끗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약(다섯가지 약)	번뇌를 멀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필(다섯가지 붓)	학문이 수승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병(다섯가지 병)	집안을 장식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다라니	권력이나 진금을 원하는 불자	2만원
경면주사	삿된 귀신이 침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법왕불교대학

초·중급 및 야간반, 아함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배워 신심과 원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한 불교대학 초·중·고급 및 야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초급반은 주지스님 직강으로 사찰예절을 비롯해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를 강의하며,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귀국한 영일스님께서 초기원형불교를 강의하며, 야간반은 주지스님과 외부 법사를 초빙하여 주요 경전을 강의합니다. 한편 아함경을 30년 동안 연구하신 제주도 연담스님을 초청, 2년에 걸쳐 아함경 전반에 대해서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불교에 관심있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초급, 중급, 야간반은 현재 개설 중입니다.
- 아함반은 새해 3월 신학기에 개강합니다.
- 수강료는 분기별 3만원(월 1만원)입니다.

개설반	법사	주제	시간
초급반	주지스님	기초교리(예불문, 천수경, 반야심경)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중급반	영일스님	초기원형불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주지스님	지장경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특강반	외부법사	주요 경전(금강경, 아미타경)	추후 공고
아함반	연담스님	아함경(2년간 연속 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야간반	관일스님	법구경 특강	저녁 7시 ~ 8시 30분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e.or.kr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제32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하여 제31회 백고좌법회에 이어 7월 1일부터 제32회 백고좌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법왕사 백고좌법회는 1995년 처음 시작한 이래 한 해도 빠짐없이 매년 1~3회씩 개최하고 있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자들에게 익숙한 법회입니다. 이번 제32회 백고좌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화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합장



• 62일차

8월 31일

특별법문

웅산스님

예산 수덕사 전 주지



• 65일차

9월 3일

특별법문

법안스님

논산 안심정사 주지



• 68일차

9월 6일

특별법문

가섭스님

한솔종합사회복지관



• 74일차

9월 12일

특별법문

원광스님

고령 반용사 주지

◆ 일시 : 2016년 7월 1일 ~ 10월 8일 (100일간)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59일차	8월 28일 回	오경스님	안동 보경사 주지	68일차	9월 6일 回	가섭스님	한솔종합사회복지관
60일차	8월 29일 回	마정스님	서울 용마관음사	69일차	9월 7일 回	마과스님	김천 구룡사 주지
61일차	8월 30일 回	보각스님	경기도중앙승가대 교수	70일차	9월 8일 回	각안스님	봉갑사 주지
62일차	8월 31일 回	웅산스님	예산 수덕사 전 주지	71일차	9월 9일 回	성산스님	선방 정진
63일차	9월 1일 回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72일차	9월 10일 回	반산스님	양산 원각사 주지
64일차	9월 2일 回	선진스님	대구 보현암 주지	73일차	9월 11일 回	진오스님	울산 월봉사 주지
65일차	9월 3일 回	법안스님	논산 안심정사 주지	74일차	9월 12일 回	원광스님	고령 반용사 주지
66일차	9월 4일 回	재원스님	양산 통도사 한주	75~79일차(9월 13 ~ 17일)			추석연휴
67일차	9월 5일 回	도일스님	대구 구룡사 주지	80일차	9월 18일 回	정묵스님	양산 정토사 주지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